환경



오 창국 목사
백운교회

햇빛소득마을과 농촌교회의 역할

입동을 앞둔 농촌의 들녘은 조용해졌다. 벼를 거둔 논에는 짧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고, 감나무에는 미처 따지 못한 감들이 늦가을 햇살을 받고 있다. 여름에는 뜨겁던 햇빛이 이제는 반가운 온기가 되었다. 농민들은 계절마다 햇빛을 다르게 맞이한다. 봄에는 씨앗이 싹트고 여름에는 작물이 자라며 가을에는 곡식이 여문다. 햇빛은 농민이 만들어 낼 수 없지만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연의 조건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햇빛을 이용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삶을 이어 왔다. 자연의 힘에 노동을 더하면서 농업이 발전했고 문명도 성장했다. 오늘날에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어 판매하는 일까지 가능해졌다. 여기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누구에게나 비치는 햇빛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자연을 이용하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 내는 부를 나누는 일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의 소득과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농촌의 태양광 발전은 토지와 자본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발전 수익을 지역에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가 주목받는 데에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농업 생산비는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을 유지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업을 대신하기보다 농촌에서 계속 살아갈 경제적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다. 발전수익이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공동시설을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면 농촌의 삶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공동으로 발전시설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익이 저절로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출자할 여유가 있는 사람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조건은 다르다.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일부 주민이 수익 배분에서 소외된다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과 수익 배분의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다.

공동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보다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있다. 햇빛소득마을 역시 발전량과 수익 규모뿐 아니라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 새로운 소득을 얻더라도 농사의 기반을 훼손하거나 주민 사이의 갈등을 키운다면 그 성과를 온전히 긍정하기 어렵다.

햇빛소득마을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출자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민하고, 발전수익을 마을의 돌봄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이 운영 경험을 쌓아 갈 때 발전시설은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농촌교회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며, 경제적 형편이나 정보의 차이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다. 교회가 사업을 주도하기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오랫동안 쌓아 온 신뢰도 새로운 의미를 얻을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337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노블리스 말라드!"

나는 한국 사회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기대가 어긋난다. 갈수록 사회는 정글이 되어가고 분열하고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 더 배웠거나 더 가진 사람들의 배려나 헌신은 기대하기 힘든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10여 년 전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가 한 대학교에서 특이한 작품을 보게 되었다.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 적혀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프랑스어)라는 단어는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반대로 '노블리스 말라드' (Noblesse Malade)'는 "병든 귀족"으로 부와 권력을 남용하며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득권 층을 말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꾼다. 대한민국의 깔레의 시민을 기대한다.

〈'깔레의 시민'에 얽힌 스토리는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 때 '깔레'市는 끝까지 영국에 저항하다 구원 군이 오지 않아 1347년 결내 항복하게 된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 는 그 저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6명의 깔레 시민이 목에 밧줄을 매고 영국군 진영으로 걸어와 처형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깔레에서 제일 부자인 '외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선 뜻 나섰다. 그리자 시장인 '장데르'가 나섰고, 다음에는 부자 상인인 '피에르드 위씽'이 나섰다. 게다가 '드 위씽'의 아들마저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따르겠다며 나서는 바람에, 이에 감격한 시민 3명이 또 나타나 한 명이 더 많은 7명이 되었다. '외스타슈드'는 제비를 뽑으면 인간이 이상한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처형 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빼자고 제의했다.

다음날 아침 6명이 처형 장에 모였을 때 '외스타슈드'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외스타슈드'는 이미 자살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처형을 자원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 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먼저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에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하여 '에드워드 3세'에게 깔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애원하였다. 당시 왕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왕은 왕비의 소원을 받아 들여 처형을 취소했다. 그 후 깔레는 "노블레스 (귀족) 오블리주 (의무)" 라는 단어의 상징으로 등장했으며, 몇 백 년이 지난 후 깔레市의 요청으로 로댕이 10년 작업 끝에 '깔레의 시민'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깔레의 시민'이란 조각은 6명이 목에 밧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깔레' 시민의 명예이며 프랑스의 긍지이기도 하다.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의 상징이 바로 이 로댕의 '깔레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면 이 깔레의 시민이란 작품의 의미를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 좋겠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될까? 나부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누군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최용 남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행복한 세상 선명한 마태1,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근족의 속량



박창수 목사
·기독교학 박사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희년사회 연구위원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레 25:47,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가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된 단계로서,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몸이 팔릴 때, 실제로 팔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몸의 품, 곧 일을 하는 데 드는 힘, 노동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유한 거류민이나 동거인, 곧 부유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아니라 품꾼으로 그 몸의 품이 팔리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레 25:48-49, "48.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방인에게 몸이 팔린 가난한 사람은 속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며 속량을 요구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무리고 있는 부유한 이방인은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을 해방해야 한다. 속량(贖良)이란 속전이 지불됨으로써 자유를 잃었던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속량 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대속해 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 본인이 돈을 벌어 스스로 속량하는 길이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의 대속(代贖)은,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은 사람을 위해,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잃은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야 하는 법이다. 곧 가까운 친족에게는 그 친족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섬겨야 하는 사랑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레 25:50-52, "50.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여기서 속전(贖錢)은 자유 무르는 값인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요셉의 한 해 품삯은 1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는 5년일 때, 요셉이 5년 동안 품꾼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처음에 일시불 선불로 받는 품삯은 5세겔(=1세겔×5년)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3년일 때, 요셉의 가까운 친족이 요셉을 속량하기 위해 요셉을 부리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속전은 3세겔(=1세겔×3년)이다.

레 25:53-55, "53.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54.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가까운 친족의 도움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속량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희년에 자유를 되찾게 된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땅에 대한 제도'와 '사람에 대한 제도'는 일맥상통한다. 레위기 25장의 땅에 대한 제도가 바로 '희년 토지법'이고, 사람에 대한 제도가 바로 '희년 노동법'인데,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희년 토지법과 희년 노동법의 공통점

희년 토지법	희년 노동법
토지는 하나님의 것→ 토지 영구 매매 금지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 히브리인 노예 노동 금지
토지 사용권의 희년 시한부 매매 허용	노동 사용권의 희년 시한부 매매 허용
희년 전에 토지 무르기 허용	희년 전에 품꾼 속량 허용
희년에 토지 회복	희년에 품꾼의 자유 회복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 광주에서 온누리에…"

함께가는온누리선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합니다

■ 주 제 : 주 하나님의 열광을 보리라
■ 일 시 : 2026년 12월 14일~15일 오후2시, 7시
■ 장 소 : 호남신학대학교 대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중로 77(양림동 108)
■ 강 사 : 나은미 선교사
■ 대 상 :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
■ 참가비 : 무료 (저녁식사제공)
■ 주 최 : 함께가는온누리선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남광주역 하차 3번출구로 나와 양림교 방향으로 도보이동 (약 15분 소요)
• 버 스 : 급행 풍암06 진월07
간선 지원 45
지선 송암74
향교정류장 하차 도보이동 (약10분 소요)



함께가는온누리선교회 안찬숙 010-8228-6557 / 정영애 010-4027-2525